



# 불교 잠재력 무궁무진

## 인천·강화

### # 인천

불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는 인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인천. 인천불교는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리 약한 편이 아니다.

인천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화엄종 법륜종 삼계종 정토종 법사종 등 다섯 곳의 총무원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일봉선교종 법사종 화엄종 정토종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 종단의 지도자와 총무원이 밀집해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또 하나, 연령대별 스님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자 장점이다. 인천 지역의 65세 이상 스님들의 모임인 '인천불교원로회' (회장 봉해)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40대 젊은 스님들의 모임인 '인천불교중년회' (회장 일최)도 수시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불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사찰들의 연합체가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모든 종단을 아우르는 인천불교연합회가 있고, 이중 조계종 사찰들이 별도로 '조계종 사암연합회'를 결성

### 인천 區별·연령대별 사찰 연합체 속속 결성

### 강화 명찰의 고장... 지역문화 발전 이끌어

해 이름을 내걸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연수구 등에는 구 단위 사찰연합체가 구성돼 있다.

불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도 인천불교의 특징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인천시청봉자회, 인천 법조인 불자회, 인천 신도연합체인 하심회, 지역 군부대 법회가 열린다.

이렇게만 보면 인천불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특징들이 하나로 묶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힘을 빼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불교회관이 운영문제를 둘러싼 일부 스님들 간의 갈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인천불교연합회와 조계종 사암연합회도 실질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인천불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스님은 "개별 사찰은 부자인데, 전체는 가난하다"며 이런 현실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스님들은 인천불교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비록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개신교세가 강한 곳이라고 하지만 포교 열의와 인프라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불불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허황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신행도량인 흥륜사는 이제 지역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을 만큼 위치를 확고히 다졌고, 용화사는 수행도량으로서 불교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또 법림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한 정법도량으로, 약사사는 기도도량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고 불자들이 지역민들을 불러들이고 있고, 부부나포교원은 청소년 포교로, 인해전통문화예술원은 불교 예술로 대중 속을 파고드는 등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린 활동을 펼치면서 불교 주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강화

강화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불교는 사실상 따로 움직인다. 그리고 강화불교는 인천불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유명한 전통사찰이 강화에는 많다는 것이다. 전등사 보문사 백련사 정수사 청년사 적석사 등의 전통사찰들은 강화불교의 힘의 원천이다.

사찰 간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인천과는 다른 점이다. 사암련 차원에서 어린이·학생 수련회를 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하는 등 강화의 사찰들은 사암연합회를 축으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경승활동도 활발해 백련사는 강화경찰서에

찾기를 만들어주었음 정도다.

사찰들도 개별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포교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등사는 삼랑성문화축제와 템플스테이 등으로 강화불교를 이끌고 있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적석사는 아름다운 일·출몰을 볼 수 있는 낙조대와 함께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불자들이 일방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또 보문사는 용왕기도로, 선원사는 논두렁연꽃축제로, 무애원은 도자기와 함께 군포교로 이름을 높이고 있으며, 법왕사의 '코끼리 유치원'은 강화 최고의 유치원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전등사 보문사 백련사 적석사는 전통차집을 갖추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편안한 사찰 이미지를 심고 있다.

사실 강화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좋은 여건은 아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개신교세가 훨씬 강한 곳이다. 사찰 수 30여 곳과 비교해 교회는 250개가 넘는 정도로 인구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오히려 불교를 부러워한다. 강화군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인종할 정도로 각종 지역행사는 물론 복지활동도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인천·강화=한영우 기자



해병대 장병들이 강화 무애원에서 도자기 빚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무애원은 강화 지역 장병들에게 휴식처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강화 무애원

### 흥륜사를 포교 1번지로

법륜 스님 (인천 흥륜사 주지·관음종 종회의장)

법륜 스님은 인천 불교 포교의 대명사로 불린다. 40년 동안 인천에서 포교에 매진하면서 흥륜사를 인천의 포교 1번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때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과 만나고,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륜을 하기 전 이름을 고박 법문준비를 할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신도들에게는 철저한 신심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천불교연합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 해병대원의 고민 해결사

설봉 스님 (강화 무애원 주지)

설봉 스님은 도자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설봉 스님이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도자기 말고도 포교다. 무애원에서 열리는 정기법회와 특별법회는 모두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법회다. 청년 나무를 심어아 부처님 동산이 푸르게 된다는 소신으로 해병대 포교를 한지 벌써 13년째. 강화 해병대 부대원들이 설봉 스님을 '고민 해결사'로 부를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낸다.



지금의 법당을 열고 내년에 군법당을 여법하게 지을 계획이다.

### 인천불교 토박이

탄공 스님 (인천 보화정사 회주·법륜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은 12년간 인천불교연합회 총무를 맡아 인천불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인천에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넘는 인천불교의 토박이. 10년 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인천 연수구에 포교당을 마련하고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다. 올 1월에는 법륜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중책을 맡게 됐다.



현재 법륜종 총무원사와 연수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법 신행 바람 일으켜

현성 스님 (인천 법림사 주지)

18년 전 법림사를 창건, 인천불교에 정법신행의 바람을 일으켰다. 법림사의 불교대학, 일요법회, 산악회, 합창단은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현성 스님은 또 신도들에게 수행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 안거 때는 선방 대중공양도 빠뜨리지 않는다. 인천의 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지역불교 발전과 화합에도 기여했다.



### 지역 청소년 포교 일인자

선일 스님 (인천 부부나포교원 주지)

인천에서는 청소년 포교하면 선일 스님으로 통한다. 15년 동안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 청소년인권정책개발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선방과 찾집 등을 설립,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9년 인천에서는 유일한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인 인천불교대학을 개설했다.

### 적석사 기도도량 탈바꿈

선암 스님 (강화 적석사 주지)

폐사지전의 적석사를 강화 제1의 기도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지난 8년간 도량을 정비하고 전각불사를 통해 적석사를 완벽하게 복원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장과 교육국장, 총무원 감사국장, 기획국장 등을 지낸 실력파이기도 하다. 불교방송에서 1년 넘게 '신행상담실'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 다채로운 이벤트 기획

성원 스님 (강화 선원사 주지)

황토한증막, 목탁소리 내는 쇼, 무료 썰매·스케이트장, 논두렁 연꽃축제. 성원 스님은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불교와 일반의 간격을 좁히면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蓮)에 대해 관심을 집중, 연꽃을 대중화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연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또 농민의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강화군과 협의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통예술 대중화 헌신

일초 스님 (인해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

인천무형문화재 인천수륙재와 법배·작법부 보유자인 일초 스님은 불교전

### 통예술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전통예술포교를 위해 인해전통문화예술원을 설립, 서울과 인천에 연수관을 두고 전수생 교육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인천 무형문화재공예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지역문화 장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5월 삼계종을 창종하고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



### 마을주민의 사랑 한몸에

윤진 스님 (강화 화개사 주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 교동도. 교동도의 유일한 사찰 화개사의 주지 윤진 스님은 교동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경로잔치도 열고 군인들 위문도 자주 가고, 농번기 때는 농사일도 돕고, 마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추수철에는 마을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그렇다고 화개사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양주도 두지않고 일할터야 겨우 지역민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 특별법회로 신행 활성화

일지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요가족법회, 풍물법회, 어린이 법회, 합창단 법회와 함께 기초교리와 경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포교를 하고 있다. 또 매년 한 차례씩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으며, 열불봉사단도 조직해 자원봉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도들의 신행활성화를 위해 사보를 창간, 11월 9일 창간호를 발행할 예정이다.



### 기도도량 가꾸기 구슬땀

하응 스님 (인천 약사사 주지)

1999년 약사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약사사를 젊고 역동적인 사찰로 바꾸어 놓았다. 종합봉사계획을 추진, 5년 간 각종 불사를 통해 사격을 갖추었으며, 100평 규모의 돌로 쌓은 화엄일승법계도와 지장전을 내년말까지 완공해 완벽한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남동구경찰서 경승위원장, 인천교도소 교화위원을 맡아 지역활동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청주 두진빌라·안동 현대아파트·목동 우성아파트·일산 후곡아파트·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부천 오정지구 구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시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15%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실 22℃, 기실 18℃, 공부방 20℃, 할메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